

삼덕통상(주)의 개성공단 시범단지사업 : 신발제조

전 성 표*

I. 회사소개

세계속의 신발 메카인 부산에서 1997년 11월에 설립된 삼덕통상(주)는 설립 이듬해에 수출 500만불탑 수상, 그 다음해에 수출 1,000만불탑 수상 및 수출유공자 대통령 표창 수상 등 설립 이래로 비약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신발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조·생산부문에 치중하는 여타의 업체와는 달리 당사는 기존의 OEM, ODM 생산체제는 유지하되 노동집약의 대량생산체제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소량주문생산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신발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사는 최고의 제조기술 및 부품소재분야에서의 우위요소를 바탕으로 한 부산 본사

공장을 중심으로, 가격경쟁력 확보와 원활한 제품공급을 위해 2001년 설립된 중국 청도공장과 2005년 3월 이래 가격, 비가격적 우위요소를 가진 북한 개성공장을 운영 중이다.

고객에게는 “언제나 편안함”, 바이어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저비용, 고효율, 신기술이 결합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100% 무결점 제품 생산을 향한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지향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대북사업의 모델기업 및 세계속의 신발제조회사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II. 개성공단 투자사업

1. 사업추진배경

1960년대 우리 경제는 정부주도의 경제

* 삼덕통상(주) 기획부 전략기획 마케팅팀장

개발 5개년 이후 노동우위요소를 바탕으로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이후 한국경제는 노동우위요소를 점차 상실해가는 가운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급속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발전, 중국의 WTO 가입, 베트남의 GSP 특혜관세부여 등은 한국경제의 위협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신발산업의 본격적인 해외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1995년 이후 시작되었으며 경공업육성정책 및 외국인기업 지원에 앞장선 중국 청도나 베트남 호치민을 중심으로 국내 신발업체는 급속히 빠져 나갔다.

하지만 지나친 해외 지역편중현상은 급속한 임금상승률, 인력난, 심각한 이직률, 임대료 상승 등을 불러 일으켰으며 사전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많은 국내 중소기업들의 도산을 초래하였다.

당사가 최초로 북한 개성공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가 이 무렵이다. 국내 중소기업이 북한 개성공단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당사는 개성공단만이 한국신발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라 확신하였다.

북한 개성공단은 생산의 3대요소를 충족시키며 해외투자에 대한 위험부담, 기타 해외진출시의 고려사항 및 기회비용을 상쇄시키고 가격, 비가격적 우위요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2. 사업추진 당위성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확대 등을 통하여 대북관계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남북한 교류를 통한 경제적 상호이익을 추구하고, 북한 스스로 경제적 자생력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사업의 촉진과 기초를 다지기 위해 남북한은 투자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남북협력사업자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경협 확대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당사는 남북간 최초의 역사적 대규모 투자사업인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남북간 경제협력의 질적 향상과 우리 기업의 성장발전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부산시 10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신발제조업은 소비자의 생활향상과 함께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발제조업체들이 영세성과 사양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조립 또는 봉제공정을 중국 등 인건비가 싼 해외공장에서 외주가공하고, 완제수입품으로 국내판매가 이루어짐에 따라 엄청난 물적, 시간적 물류비를 지불하면서 생존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진출 경공업체 70%가 도산).

남한에서는 신발업종은 이미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양산업화가 진전되었다. 그러나 신발업종이 과거 1960년대부터 우리 경제 성장발전의 근간이 되었던 경험에 비추어 유휴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북한개성에 공장을 운영키로 하였다.

신발제조업은 현 북한의 경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부흥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업종으로서,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봉제사업부문, 부품소재 생산부문을 개성에 두고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활용하여 국내내수를 중심으로,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과 북한의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사업내용

삼덕통상(주)는 철저한 사전준비와 실천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신발제조업체이다.

가. 1단계 : 인프라 구축

- 개성공단 입주 -> 기초기반 구축 -> 경쟁력 확보 -> 한국신발산업의 재도약

나. 2단계 : 구조고도화

- 설비확장 및 투자 -> 생산합리화 -> 기술 및 구조 고도화 -> 연구개발 강화

다. 3단계 : 고부가가치화

- 세계 브랜드 개발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 신발산업의 부흥 -> 글로벌 베스트

4. 기대효과

가. 남북관계 개선기여

- 남북관계의 질적향상 도모
- 개성인근 노동력 흡수, 감동경영 실현, 통일비용 절감
- 신발관련 기술합작을 통한 남북 기술교류 활성화

나. 경제적 파급효과

- 대북사업의 모델기업, 세계시장의 교두보 역할 담당
- 개성인근의 인력활용으로 북한의 실업 감소
- 남한의 경제개발과 유사한 초기 성장모델 지원

다. 부가가치 창출

- 타업종 대비 높은 고용창출을 통한 북한 경제발전 기여

- 북한의 기초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제품생산
-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의 외주물량 흡수, 효용증대
- 개성지역 발전에 기여, TSR·TCR의 요충지 역할에 일익

라. 기업경쟁력 확보

- 노동집약적 사양산업의 이익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증대
- 물류비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 효율 향상
- 중국, 러시아, 유럽 등 현지수출확대 등 국제경쟁력 확보
- 무비자 출입, 세제혜택 등 각종 특혜수혜로 사업운영 유리

5. 최종목표

한국의 신발산업은 경제개발계획을 발판으로 국가부흥 및 수출증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과거의 경제발전과정에 비추어 신발산업의 개성공단 입주는 남북한의 상호 경제적, 정책적 이익추구가 가능하고, 국내서 사양화 되어가는 신발산업의 재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삼덕통상(주)는 ①북한의 양질의 한민족 인력활용, ②국내 사양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실현, ③기존 중국이나 베트남

대비 월등한 납기단축 및 품질경쟁력향상, ④국내신발관련 중소기업 효용증대, ⑤생산비용절감으로 인한 가격경쟁력확보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6. 개성공단 투자환경

- 가. 토지이용 : 50년(연장가능), 토지이용권 및 건물소유권의 취득, 양도, 임대, 상속가능 (국내 수도권 공장요지의 약 1/3 수준인 평당 15만원수준)
- 나. 출입증 : 통일부의 방북증명서 발급 (무비자)
- 다. 관세 : 무관세지역보장
- 라. 언어 : 동일민족, 동일언어 사용으로 사업운영 유리
- 마. 기업소득세 : 경공업부문 등 10%, 기타 부문은 14%, 남한 : 23~28%
- 바. 업종제한 : 일부금지업종(건강상 장애 업종, 환경침해 업종 등)
- 사. 노동시간 : 노동규정 제 20조에 의거 개성공업지구에서 기업의 종업원 노동시간은 주 48시간
- 아. 노동보수 : 노동규정 제 25조에 의거 종업원 월 최저노임은 50달러로 하며 종업원 월 최저노임 인상은 전년도 월 최저노임의 5%를 초과 할 수 없음

Ⅲ. 삼덕통상(주) 개성공장 관련 주요정보

1. 공장규모 및 생산능력

- 가. 공장규모 : 대지 2,439평, 연건평 2,900평
- 나. 생산능력 : 고용가능인원 1,500명 (2005년 8월말 기준 800명), 연간 생산량(평균 작업일 월 24일 기준)은 재단, 재봉 3,600,000족, 프레스 2,600,000족, 완제품 2,250,000족
- 다. 투자규모 : 토지매입에 3억 6천만 원, 건물설립에 50억 원, 설비구입에 23억 원 등 총 84억 원 투자

2. 사업추진 경과

- 2004. 05. 27 한국토지공사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신청
- 2004. 06. 05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업체 선정(한국토지공사)
- 2004. 06. 14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매매계약
- 2004. 08. 31 삼덕통상(주) 건축허가 승인
- 2004. 09. 08 삼덕통상(주) 협력사업자승인 및 협력사업승인(통일부)
- 2004. 09. 16 한국토지공사 토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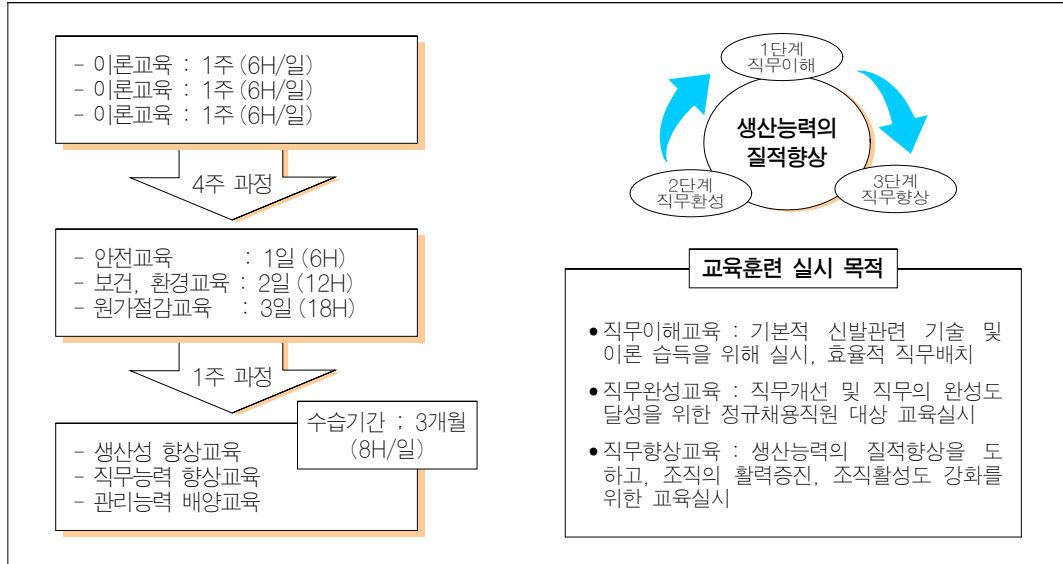
승락

- 2004. 09. 17 삼덕통상(주) 개성공장 착공신고 승인(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2004. 10. 21 삼덕통상(주) 개성공장 시공계약(현대아산)
- 2005. 01. 21 본사직원 개성과견근무 시작
- 2005. 02. 01 북측인력 16명 이론교육 시작
- 2005. 02. 14 설비 반출 및 설치 시작
- 2005. 05. 26 (주)삼덕스타필드 기업등록 및 창설(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2005. 07. 23 (주)삼덕스타필드 공장등록(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2005. 08. 30 기준 총 800명의 북측인력 고용

3. 사업진행 효과

한마디로 “한민족의 손재주는 정말 탁월하다”고 표현하고 싶다. 당사 개성공장에서는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력들은 신발제조 관련 업종이나 기타 봉제관련 경력이 거의 없으며 심지어 재봉틀을 한번도 잡아보지 않았거나 간단한 의류수선용 재봉틀을 일부 사용한 경험밖에 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사업진행과정에서 그들의 열정과 노력, “개성공단 사업은 민족사업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표〉 개성공장 북측 종업원 입사교육 프로그램



상기 표는 당사 개성공장 입사시 북측인 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초기투자비용,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투자, 상당수의 본사직원 파견교육 등으로 인한 본사인력 누수현상 및 대체인원 확보 등이 불가피하였지만, 북한인력의 최초 입 사시 위와 같이 체계적이고 현지 실정에 맞 는 교육프로그램을 충실히 시행한 결과, 불 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다.

5개월부터 몇몇 라인에서는 중국이나 남 한 생산대비 60% 수준의 생산성에 접근하 였으며, 작업 생산성은 60% 수준 달성에 불과하였지만 제품의 품질 및 관리는 중국 이나 여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는 정도였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당사의 대북 개 성공단사업에 한번 더 확신을 서게 하였으 며 지속적인 투자로 연결되었다.

4. 개성공단에서의 애로점

가. 남북이 함께 해결할 점

개성공단의 이러한 탁월한 우위요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가지 보완점 및 해결해 야 할 사항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흔히 알고 있는 통행, 통신 등의 불편은 여 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으며 화물 의 육로이동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 공단의 인프라 시설확충 지연, 대부분 물품의 현지

조달 불가 등의 사항이 있으나 분단이후 최초로 남한의 전기가 북한 개성공단에 공급되었듯이 점차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나. 우리 정부에 바라는 점

국내 중소기업 대부분이 그러하듯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으로 대북 개성공단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나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

IV. 성공전략과 비전

1. 4P'S 전략

가. PRODUCT

- 질 좋은 한민족 노동력을 활용하여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
- R&D 투자비용을 높여 신소재 개발 및 고기능靴 출시
- 친환경적 제품생산
- 품질경쟁력 확보

나. PLACE

-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납기단축
- 개성공단의 지역 인프라 최대 활용
- TCR·TSR과 연계된 물류망 활용
- 부산지역 신발제조업체의 외주수요를

흡수하여 신발업종 생산활성화 유도

다. PRICE

- 양질의 저임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가격 경쟁력 확보 및 질 좋은 제품 생산
- 대량생산체제 확보를 통한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제품에 대한 경쟁력 확보

라. PROMOTION

- 대북사업의 성공적 모델기업 확산
- 대북 기술교류, 기술이전 확산
- 신발부문의 세계화 기업

2. 비 전

삼덕통상 주식회사는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미 확보하여 매년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우수한 경영진 및 기술력, 내실있는 기업경영을 바탕으로 북한 개성공단 진출 이후 북한의 높은 고용창출, 고부가가치화, 남북관계의 질적향상, 대북사업 활성화, 국가경쟁력 확보, 남북평화수호의 일익을 담당하며, 이같은 대북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과 가격으로 국가 경제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다.